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3호 [루게 제24361호] 주체102(2013)년 11월 9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명록 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에 있는 《최고사령관과 전우관》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 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우이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생을 바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저명한 활동가인 조명록 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혁명사적관에 있는 《최고사령관과 전우관》을 찾으시였다.

최룡해 동지, 김수길 동지, 량철성 동지, 리재일 동지, 황병서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고사령관과 전우관》에 전시된 조명록 동지의 사진들과 유물들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11월 6일은 조명록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난 날이라고 하시면서 그와 영결하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벌써 3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명록 동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혁명동지, 혁명전우였다고 하시면서 조명록 동지가 서거한 날을 맞고보니 그가 못 견디게 그리워 이곳을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무정신, 투철한 혁명적원칙성, 고지식한 품성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오던 조명록 동지를



초석을 굳건히 다지고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한생을 다 바친 전설적인 혁명가, 참된 전사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서 생사명멸을 같이한 전우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는 혁명을 추동하고 전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도 혁명적투쟁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전우들에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력사를 보여주는 교양거점답게 《전우관》을 새로 잘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전우관》은 수령과 전사들 사이에 맺어진 끈을 끊을 수 없는 혈연적관계와 피로써 개척된 조선혁명의 동지애의 력사, 일심단결

영원히 잇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조명록 동지의 업적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백승을 떨쳐온 우리 혁명무력의 영광스러운 력사, 선군혁명력사가 집약되어 있는 《최고사령관과 전우관》을 돌아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혁명전사들의 사진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최고사령관과 전우관》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 정을 주고 사랑하시였으며 당과 수령에게 자기 운명의 피줄을 잇고 우리 당을 총대로 옹호보위한 전우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이 모진 시련과 난관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최고사령관과 총대 전우들 사이에 맺어진 혼연일체, 혁명적동지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하였던 인민군대의 지휘성원들은 최고사령관과 사상도 뜻도 숨결도 운명도 같이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들은 우리 혁명의 자랑이고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인 참다운 동지애의

빛나는 전통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교양장소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친 혁명전사들의 신념과 의리가 어떤 것이며 그들의 업적이 어떻게 빛나는가를 보여줄 수 있게 《전우관》을 꾸림으로써 그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세계를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깊이 체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지정보도반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사와 더불어 영생하는 수령의 전우



주체78(1989)년 4월 22일



주체91(2002)년 12월 27일



주체94(2005)년 10월 10일



주체86(1997)년 7월 13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걸출한 정치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오늘 우리 조국땅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 투쟁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탁월한 정치로 창조와 건설을 위한 길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진군이다.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이 거창하게 벌어진 20세기를 빛나게 장식하고 21세기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치의 세계정치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탁월한 정치, 창조와 건설의 위대한 정치이다.

비범한 예지와 가장 성공적인 정치로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개척하고 우리 조국과 후손민들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업적은 우리 근대와 인민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의 보검으로 끝없이 빛날것이다.

1

참다운 정치가 실시되는 행복한 사회에서 살려는것은 인류의 오랜 세기적숙망이다.

지구상에 사회주의국가가 출현하고 사회주의정치가 탄생한 때로부터 근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사회주의의 승리적진전과 우여곡절이 엮였지만 이 로정은 어떤 정치가 가장 위대하고 생명력있는 정치인지를 하는것이 뚜렷이 검증된 있을수 없는 행로였다.

이 격동의 년대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의 방항타를 우리게 잡으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정치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거창한 혁명실현으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걸출한 정치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걸출한 정치가, 창조와 건설의 영재, 이 성스러운 호칭속에 우리 조선을 불멸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시고 우리 인민을 가장 존엄하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력사가 함축되어있다.

주제 100년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백전백승의 혁명영웅사로 빛을 뿌리고있다. 세계정치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처럼 장구한 기간에 걸쳐 조국과 민족, 시대와 혁명의 휘황한 앞길을 밝히며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끌어온 절세의 위인을 알지 못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오랜 세월 심오한 사상리론과 독창적인 정치방식, 거창한 혁명실현으로 창조와 건설의 풍부한 경험과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기에 우리 당과 국가가 불멸의 위업을 떨치고 우리 인민의 존엄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된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라는 직함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만이 감당시켜 부를수 있는 성스러운 부름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현시대의 특출한 정치가》, 《탁월한 정치인》,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신 혁명의 영재》로 진보적인류의 다견없는 칭송을 받고계신다. 천리해인의 신검지명과 비범한 정치실력으로 주체혁명위업, 신군혁명위업수행의 강력한 정치군사적 토대를 마련하시고 세기적의 비약과 창조적 열풍을 안아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명도는 우리 조국의 통성번영을 이룩하고 세계자주화운동에 큰불꽃을 던지셨던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을 자주적인인민으로 키우시어 혁명의 주체를 백만으로 강화해오신 걸출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치는 천대만고 억압받던 우리 인민에게 자주와 신임을 안겨주고 천만군민을 결연한 혁명가, 시대의 영웅, 력사의 창조자로 키워준 자랑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를 밝혀

준 등대였고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끈 기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군시대 혁명의 주체에 관한 새로운 리론을 제시하시고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을 뚜렷이 검증하시였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며 인민군대가 창조한 혁명정신을 시대정신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밀고나갈때 대한 우리 당의 탁월한 사상리론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투쟁에서 커다란 승리가 이룩되게 되었다.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언제나 인민군대가 서있고 그들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 일본색을 따라배워 진제 인민이 펼쳐나가고있는 오늘의 시대야말로 혁명의 주체의 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발휘되고 있는 거창한 변혁의 시대, 위대한 창조시대가이다.

창조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그 어떤 재부보다 귀중한것은 그 담당자인 인민대중의 리의를 옹호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를 일떠세우시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혁명군대를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어 우리 인민이 당의 령도밑에 강력한 군력에 의거하여 주체의 강국을 일떠세우는 력사의 새시대를 펼쳐시였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을 떠맡고나가는데서 반드시 틀어쥐어야 할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해주신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이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는 자기의 창건을 선포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창조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그 위력을 힘있게 떨쳐왔다.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강국과 혁명전쟁과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격변하는 정치정세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사회주의의 길로 뚜벅이 걸어올수 있는것은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국가가 든든하며 우리 군대가 굳건하기때문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하는 열병행진과 행사장들에서 울려 퍼지는 무궁한 만세의 환호소리는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인민의 나라를 세기까지 세기까지 이어 빛내어나가는 우리 근대와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의 분출이다. 세상에 나라마다 당이 있고 정권이 있고 군대가 있지만 우리 당, 국가, 군대처럼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로 위용떨치는 당, 국가, 군대는 없다.

혁명이 개척될 당시 당도 정권도 군대도 없었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명도로 불멸의 당과 국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백승의 무기가 있기에 우리에게 무서울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 앞으로 세계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정치적무기를 가지고있는 선군조선이 어떻게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솟구쳐 오르는가를 반드시 보게 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을 자주적인인민으로 키우시어 혁명의 주체를 백만으로 강화해오신 걸출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치는 천대만고 억압받던 우리 인민에게 자주와 신임을 안겨주고 천만군민을 결연한 혁명가, 시대의 영웅, 력사의 창조자로 키워준 자랑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를 밝혀

준 등대였고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끈 기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군시대 혁명의 주체에 관한 새로운 리론을 제시하시고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을 뚜렷이 검증하시였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며 인민군대가 창조한 혁명정신을 시대정신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밀고나갈때 대한 우리 당의 탁월한 사상리론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투쟁에서 커다란 승리가 이룩되게 되었다.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언제나 인민군대가 서있고 그들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 일본색을 따라배워 진제 인민이 펼쳐나가고있는 오늘의 시대야말로 혁명의 주체의 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발휘되고 있는 거창한 변혁의 시대, 위대한 창조시대가이다.

창조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그 어떤 재부보다 귀중한것은 그 담당자인 인민대중의 리의를 옹호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를 일떠세우시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혁명군대를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어 우리 인민이 당의 령도밑에 강력한 군력에 의거하여 주체의 강국을 일떠세우는 력사의 새시대를 펼쳐시였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을 떠맡고나가는데서 반드시 틀어쥐어야 할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해주신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이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는 자기의 창건을 선포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창조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그 위력을 힘있게 떨쳐왔다.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강국과 혁명전쟁과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격변하는 정치정세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사회주의의 길로 뚜벅이 걸어올수 있는것은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국가가 든든하며 우리 군대가 굳건하기때문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하는 열병행진과 행사장들에서 울려 퍼지는 무궁한 만세의 환호소리는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인민의 나라를 세기까지 세기까지 이어 빛내어나가는 우리 근대와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의 분출이다. 세상에 나라마다 당이 있고 정권이 있고 군대가 있지만 우리 당, 국가, 군대처럼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로 위용떨치는 당, 국가, 군대는 없다.

혁명이 개척될 당시 당도 정권도 군대도 없었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명도로 불멸의 당과 국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백승의 무기가 있기에 우리에게 무서울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 앞으로 세계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정치적무기를 가지고있는 선군조선이 어떻게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솟구쳐 오르는가를 반드시 보게 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을 자주적인인민으로 키우시어 혁명의 주체를 백만으로 강화해오신 걸출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치는 천대만고 억압받던 우리 인민에게 자주와 신임을 안겨주고 천만군민을 결연한 혁명가, 시대의 영웅, 력사의 창조자로 키워준 자랑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를 밝혀

준 등대였고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끈 기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군시대 혁명의 주체에 관한 새로운 리론을 제시하시고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을 뚜렷이 검증하시였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며 인민군대가 창조한 혁명정신을 시대정신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밀고나갈때 대한 우리 당의 탁월한 사상리론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투쟁에서 커다란 승리가 이룩되게 되었다.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언제나 인민군대가 서있고 그들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 일본색을 따라배워 진제 인민이 펼쳐나가고있는 오늘의 시대야말로 혁명의 주체의 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발휘되고 있는 거창한 변혁의 시대, 위대한 창조시대가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언제나 인민군대가 서있고 그들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 일본색을 따라배워 진제 인민이 펼쳐나가고있는 오늘의 시대야말로 혁명의 주체의 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발휘되고 있는 거창한 변혁의 시대, 위대한 창조시대가이다.

2

오늘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정치를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정치라고 끝없이 격찬하며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주체조선의 영상으로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며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크나큰 혁명업적을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치는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이며 과학적인 정치이다. 이 당우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를 건설하려는 리념밑에 인민대중의 불굴의 정신력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 주체적으로 밀고나가는 정치방식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치의 근본을 이룬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치야말로 인민투쟁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간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길을 밝힌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정치가 있기에 주체의 사회주의건설력사가 그처럼 빛나는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치는 철학적사색으로 정화된 위대한 정치이다. 사색의 빈곤은 철학의 빈곤을 낳고 철학의 빈곤은 정치의 빈곤을 가져온다. 수령의 사색의 깊이와 폭이 혁명의 심도이며 폭이다.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수령의 사색은 보통사람의 사색을 초월한 더없이 심오하고 폭넓은 사색으로 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은 사색가형의 정치가, 철학가형의 정치가이다. 비오는 새벽에도, 눈보라세찬 밤에도 맑고 험한 천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끊임없이 사색하고 사색하신 절세의 위인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색의 세계에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인민들이 쓰고사는 자그마한 소비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 크고작은 모든 것이 다 있었다. 과란많은 조선혁명을 이끌어 나가는것으로 하여 그 누구보다도 많이 사색하고 또 사색하신 절세위인들의 정력적인 탐구가 있었기에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사회,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때 대한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같은 독창적인 사상리론이 제시될수 있었고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는 선군정치리론이 완성될수 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치야말로 언제나 심오한 사색에 기초한 백전백승의 정치, 가장 과학적인 정치이다.

20세기에 이어 21세기 10년대의 투쟁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치의 진리를 남김없이 확증된 년대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치로선에는 현시기 강성국가건설투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는데서 나서는 주체적인

다라는 구호관이 세워져있었다. 대회참가자들의 열광마당에는 파학자, 기술자들에게 한창되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고 그들을 최첨단과학자로 현명하게 이끌

방도들이 명확히 제시되어있고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는 길이 뚜렷이 밝혀져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심오한 탐구와 사색으로 매 시기 들고나가는 할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천변만화의 전략철술로 우리 혁명을 이끄시였기에 우리는 제국주의를 단호히 수호해줄수 있었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력사에 당대에 정치를 잘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위인들이 있었지만 위대한 대원수님들처럼 정력적인 사색으로 먼 앞날까지 환히 내다보시고 불멸의 사상리론적지침을 마련하신 정치가를 그 어느 위인전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앞으로의 선군조선의 천만년사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파시하는 력사로 수놓아질 것이라는것이 지난 주제 100년대의 력사적확화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치는 필승의 신념과 강인의 의지로 일관된 백승의 정치이다. 한낱 내세운 정치리념을 끝까지 실현한다는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이 정치적문제로 전환될수록 정치는 더욱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으로 제기되게 된다. 하기에 사람들은 성공적인 정치는 반드시 필승의 신념과 강인의 의지가 놓여있다고 말하는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활동로정은 보물의 단락과 지리노는 도저히 헤쳐줄수 없는 고난한 로정이었다. 이 길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강권책동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해야 하는 판가리결사정도 있었고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을 물리치고 혁명을 이끌어내야 하는 시련도 있었으며 최단기간에 혁명을 높은 단계로 상승시켜야 할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도 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순간의 주저나 동요도 없이 사생결단의 각오를 지니시고 온갖 시련을 맞받아 뚫고오시였다. 적들의 공세가 악화될수록 명철한 견술로 뒷받침하시며 군대와 인민을 믿고 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오신분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시다. 절세위인들의 필승의 신념과 의지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전후 세대에미서까지 자주, 자립, 자유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고난의 행군, 강성군의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국가건설의 로정을 힘차게 올릴수 있었던것이다. 부서져도 휘둘러지지 않는 백옥과 같은 순결성도 불태도 타도 감을 버리지 않는 참애와 같은 강직성, 눈속에 파묻혀도 푸름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색의 세계에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인민들이 쓰고사는 자그마한 소비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 크고작은 모든 것이 다 있었다. 과란많은 조선혁명을 이끌어 나가는것으로 하여 그 누구보다도 많이 사색하고 또 사색하신 절세위인들의 정력적인 탐구가 있었기에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사회,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때 대한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같은 독창적인 사상리론이 제시될수 있었고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는 선군정치리론이 완성될수 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치야말로 언제나 심오한 사색에 기초한 백전백승의 정치, 가장 과학적인 정치이다.

20세기에 이어 21세기 10년대의 투쟁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치의 진리를 남김없이 확증된 년대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치로선에는 현시기 강성국가건설투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는데서 나서는 주체적인

다라는 구호관이 세워져있었다. 대회참가자들의 열광마당에는 파학자, 기술자들에게 한창되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고 그들을 최첨단과학자로 현명하게 이끌

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새 세계 인민혁명적 불굴을 새차례 지펴올려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극을 열어나갈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치는 혁명의 미를 위한 가장 숭고한 정치이다. 혁명은 미래를 위한 투쟁이다. 자기 대에는 비록 락을 보지 못하더라도 후대들이 덕을 보게 되면 그만이라는 신념을 지닌 정치가는 고생도 락으로 여기며 머나먼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게 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은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까울것이 없다는 확고한

신조를 지니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미래를 사랑하라!》. 이것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관을 관통하고있는 기본정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전적의 나날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에게 친어머니사랑을 부여하시던 그 심정을 이르는것보다는 소년궁전, 소년단아영소들을 일떠세워주시고 외진 섬마을과 심심산골에도 학교를 세워주시어 배움의 글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오늘에 살자는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후대사랑의 길을 이어오시였다. 어린이들속에서 남다른 재능의 싹을 발견하시고 그처럼 대견해하시며 앞날도 축복해주시고 자신께서는 전진길로 떠나시면서 야망을 떠나는 아이들을 손저어 바래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현대적인 교육시설과 설비를 마련해주시어 배움의 노래를 활짝 퍼도록 하시분도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은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놓은 근본원천이였다.

가장 훌륭하게, 완전무결하게라는 말씀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관이 집약되어있다. 공장을 하나 일떠세우고 발전소를 하나 건설해도 후대들을 위한 일이라는 관점을 지니고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은 뜻이였다. 다른 사업에서는 실사 다하지 못한 일이 있어도 후대들을 위한 사업에서는 단 한건의 미결건도 없어서는 안된다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이 전도양양한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이다.

불과 100여년전만 하여도 식민지약속국으로 지도우에서 빛마저 잃었던 우리 조국이 주체의 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 장엄한 현실은 위대한 정치가, 창조와 건설의 영재를 수형으로 높이 모실 때 나라도 인민도 강해진다는 진리를 옹변해 가르쳐주셨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탁월한 정치실력을 지니시고 조국과 민족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세계와 세월이 이어 후손민들의 번영을 위한 고귀한 재부로 영원히 빛날것이다.

오늘의 시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치가 구현되는 위대한 시대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계승하여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투쟁을 이룩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거장이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총진군이 시작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정치실력이 남김없이 파시된 승리와 영광의 로정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인민의 리의를 최우선 시하는 위대한 행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치에 일관되어있는 최고원칙이며 최고투쟁목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야말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넉넉한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계승의 정치,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며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는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 비상한 창조정신과 혁신의 기상으로 세계를 압도하며 끊임없는 대비파, 대혁신을 일으켜나가는 비범한 정치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마련하신 강성국가건설의 만년토대고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속하고 세련된 명도가 있기에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박 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제15차 공산당, 로동당들의 국제회의에 축전을 보내었다

리스 봉

제15차 공산당, 로동당들의 국제회의의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제15차 공산당, 로동당들의 국제회의를 열렬히 축하하며 회의에 참가한 여러 나라 공산당, 로동당대표단들과 대표동지들에게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보냈다.

이번 국제회의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있는 자본주의제도자체의 구조적모순과 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횡이 날로 더욱 로골화되고있는데 대처하여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의 통일과 단결을 보다 강화해나가고있는것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열리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번 회의가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고무추동하고 서로의 단결과 협조를 실현하며 반대성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회의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되기를衷心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102(2013)년 11월 8일

평 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캄보차왕국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프롬 쉐

캄보차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 폐하

나는 캄보차왕국독립 60돐에 즈음하여 국왕폐하와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캄보차인민이 독립후 민족의 화해와 통일,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국가건설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귀국에서의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회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와 인민을 위한 당선의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있을것을衷心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2(2013)년 11월 8일

평 양

전국 과학자, 기술자 대회 참가자들

평 양 도 착

[평양 1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 따라 위대한 조국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는 력사적시기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이 높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므로써 우리 나라를 지식경제강국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대회참가자들이 7일과 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에서 관계 부인 일꾼들이 그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역 구 내 에는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



《마석경속도》창조의 불길놀이 애국농민의 영예를 빛내일 열의안고 다음해농사차비를 다그친다

당의 믿음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리

전국의 본보기 농장들에서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본보기농장에서 다음해 농사차비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 있다. 쌀로써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수상을 총극하게 받들려는 신념의 맹세를 안고 다음해 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창조해가고 있는 사리원시 미곡, 태천군 인흥, 재령군 삼지강, 룡천군 신암,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기세 충천한 모습이 별마다에 펼쳐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차비를 잘하는것은 알곡생산량을 늘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 이련 수자들이 있다. —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논 같은 1.5배, 거름생산을 위한 원료확보는 1.6배의 실적을 기록.

본보기농장들에서 이미 수행한 농사차비실적들이다. 어디에서 찾아낸 힘인가.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거름생산전투장에서 찾을수 있었다.

농장을 여러차례나 찾아다니고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뜨거운 사랑을 인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새긴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낫달림기를 끝낸 기세드높이 거름생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곳곳마다 만들어놓은 퇴적장들에서 농장원들은 북대기를 쌓고 집집순배설물을 팔고루 뿌리면서 전투를 벌이고있었다. 그때 농장 일군의 열정에 넘친 목소리가 방충선전차에서 울려나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다음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도록 경에하는 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수상을 현실로 꽃피우시다.》

그것이였다.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리의 마음,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우는것으로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높은 자각에 뿌리를 둔것이었다. 미곡협동농장만이 아니라 모든 본보기농장들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속에서도 이런 열정이 맥박치고있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의 마음들이 합쳐져 협동별은 용암이양 세계에 끓어번졌다.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거름생산전투장에서 고무보자.

《이제 하루 동안에 만도 백수십 t의 물거품을 실어올려 우리 농장원들입니다. 매일 이만한 량의 물거품을 가지고 낫달림기를 써야 포전에 내면 한도 레벨에 흉년나락 설레이게 할수

있습니다.》

열정과 기백이 넘친 농장일군의 말이였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물거품을 실은 트랙트르들과 달구지들이 포전길을 꼭 메우며 퇴적장들로 달려갔다. 퇴적장들에서는 농장원들이 서로 경쟁을 하며 한층의 거름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쳤다.

어찌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뿐이랴.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도 흙보산비료생산준비로 들끓었다. 다음해농사에 반드시 승리의 열의에 떨칠 불같은 맹세를 안고 펼쳐나선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분조마다 흙보산비료생산기지를 꾸려놓을 목표전에 힘찬 투쟁을 벌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할수 있는 단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또한 올해농사에서 은을낸 생활활성화비생산에도 큰 힘을 넣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논농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하천정리를 짧은 기간에 끝낼 목표를 세우고 낫달림기가 끝나자마자 달려붙었다. 많은 토량을 처리하면서 제방을 보수수간을 닦아주었으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웠

다. 작업반들에서는 작업공구를 갖추는것을 비롯하여 모든 준비를 끝냈다.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도 거름생산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거름생산을 위한 수천 t의 낫달림기를 확보한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그들은 농사차비를 잘하여 다음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열의를 안고 매일 맡겨진 거름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였다. 성과가 오를수록 일군들은 단계별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더욱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특히 작업반들에서 거름생산을 힘있게 내미는것과 함께 나란케기와 수송을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하였다. 작업반들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격투를 벌여 나르는 청년들…

농장원들은 공사를 시작하지 얼마 안되었지만 많은 면적의 포전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더 많은 쌀을 생산하여 강성국가를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해 분포 초를 위호로 빛내여가고있는 농장원들의 혁명적열정이 높은 자랑찬 열매였다.

농장에서는 물결정리를 위한 준비사업도 빈틈없이 하였다. 수백m구간의 물결정리를 위약단 끝낼 목표를 세운 일군들은 현장을 돌아보고 작업반별로 구간을 맡겨주었으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웠

다. 작업반들에서는 작업공구를 갖추는것을 비롯하여 모든 준비를 끝냈다.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도 거름생산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거름생산을 위한 수천 t의 낫달림기를 확보한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그들은 농사차비를 잘하여 다음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열의를 안고 매일 맡겨진 거름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였다. 성과가 오를수록 일군들은 단계별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더욱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특히 작업반들에서 거름생산을 힘있게 내미는것과 함께 나란케기와 수송을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하였다. 작업반들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격투를 벌여 나르는 청년들…

농장원들은 공사를 시작하지 얼마 안되었지만 많은 면적의 포전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더 많은 쌀을 생산하여 강성국가를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해 분포 초를 위호로 빛내여가고있는 농장원들의 혁명적열정이 높은 자랑찬 열매였다.

농장에서는 물결정리를 위한 준비사업도 빈틈없이 하였다. 수백m구간의 물결정리를 위약단 끝낼 목표를 세운 일군들은 현장을 돌아보고 작업반별로 구간을 맡겨주었으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웠

다. 작업반들에서는 작업공구를 갖추는것을 비롯하여 모든 준비를 끝냈다.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도 거름생산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거름생산을 위한 수천 t의 낫달림기를 확보한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그들은 농사차비를 잘하여 다음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열의를 안고 매일 맡겨진 거름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였다. 성과가 오를수록 일군들은 단계별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더욱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특히 작업반들에서 거름생산을 힘있게 내미는것과 함께 나란케기와 수송을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하였다. 작업반들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격투를 벌여 나르는 청년들…

농장원들은 공사를 시작하지 얼마 안되었지만 많은 면적의 포전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더 많은 쌀을 생산하여 강성국가를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해 분포 초를 위호로 빛내여가고있는 농장원들의 혁명적열정이 높은 자랑찬 열매였다.

농장에서는 물결정리를 위한 준비사업도 빈틈없이 하였다. 수백m구간의 물결정리를 위약단 끝낼 목표를 세운 일군들은 현장을 돌아보고 작업반별로 구간을 맡겨주었으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촌들에서 다음해농사를 잘 짓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지난 6월말 뒤그루모 내기까지 적기에 끝낸 이 논밭이었다. 함주군 룡천협동농장에서는 한해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영농공정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기쁨을 안고 논벼베기 작업을 잘하기 위한 문제 제기를 토론했었다. 그 때 그들의 토론을 들으며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있던 관리위원장 문용철 동무가 그에 앞서 토론했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주의를 집중시켰다.

《관과업을 수행하면서 다음해모내기준비를 동시에 내미자는것입니다.》

그가 제기한 문제를 놓고 일군들은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논농사를 기본으로 하는 이 농장은 바다를 끼고있어 땅속물층이 높다. 때문에 땅이 인자하고 늦게 녹는다. 그에 따라 감도 늦게 들어 봄갈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 그러므로 트랙트르수리정비를 미리 잘해놓았다가 가을에 논전면갈이를 질적으로 해

수입일을 놓치지 않은 사실이다. 보자.

불철농조조건이 불리한 우리 농장에서는 농사차비를 앞당겨 가을부터 다음해 봄을 불려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일군들은 가을갈이시기 수습일간의 비단운반조직을 신속하게 하였다. 즉 작업반들에서 멀리 있는 포전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나오며 비단운반을 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하루에 3정분의 비단운반을 할수 있다. 하지만 가까운 곳으로 나오는 기간 땅과 비단이 잘 마르면 트랙트르와 달구지들이 포전에 얼어붙는다.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운반량도 늘어나 같은 시간 동안에 운반할 수 있는 토량은 줄어들게 된다. 일군들은 준비된 모판자재들을 비단운반에 바쁜 트랙트르가 아니라 농장쪽으로 오는 여가지를 수송수단들을 리용하여 실어들이도록 운반조직도 실리있게 하였다.

이 현실은 일군들이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알뜰히 작전하며 완강하게 실천할 때 다음해농사차비성과를 얼마든지 높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김성철

만경대구역의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낫달림기를 지난해에 비하여 훨씬 앞당겨 끝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가을갈이를 다그치고있다. 이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구역에서는 50%이상의 경지면적에 대한 가을갈이를 해지고있고 그 기세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가을갈이가 끝난 다음에는 가을갈이를 힘있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구역일군들은 땅이 얼기 전에 모든 포전들에 대한 가을갈이를 질적으로 끝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농업근로자들을 다음해농사차비로 불려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구역당위원의 지도밑에 구역농업경영위원회 일군들이 가을갈이전투를 쇄소리가 나게 조직지휘하고있다. 이들은 농장에서 구체적인 조건에 맞게 가을갈이일정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것을 질적으로 수행해나가고도 목표 수업을 높이고있다. 또한 영농보장을 앞세우면서 트랙트르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안락군 원룡협동농장 청년 1작업반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힘있게 하였다. 다음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자면 지력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흙보산비료생산태도를

정리공사장들에 나가 바둑과기, 제방쌓기에서 속도조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물결정리기술의 만가공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강화천정리사업에서는 방정강, 하창, 대평, 북상협동농장들이 모범을 보이었다.

군소재지를 제철로호르는 우룡천은 물론 충만강, 가막천을 비롯한 군의 모든 중소하천들의 제방이 견고하면서도 보기 좋게 쌓아졌다.

강화천정리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될 결과 토지와 도로, 시설물들이 어떤 큰물에도 피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

특파기자 동세웅

안락군 원룡협동농장 청년 1작업반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힘있게 하였다. 다음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자면 지력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흙보산비료생산태도를

가을같이 성과 확대

수행해나가고있다. 특히 농장의 트랙트르운전수들은 가을같이 성과가 전적으로 자기들에게 달렸다는것을 자랑하고 만가공의 동을 높이 올리려고있다.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봉수남새전문농장의 일군

들과 농업근로자들도 가을같이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농장 일군들은 작업반들이 사회주의경쟁을 신속하게 조직하고 가을같이에서 높은 속도를 보장하면서 철저히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해나가고도 하였다.

본사기자 한성일

안락군 원룡협동농장 청년 1작업반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힘있게 하였다. 다음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자면 지력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흙보산비료생산태도를

정리공사장들에 나가 바둑과기, 제방쌓기에서 속도조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물결정리기술의 만가공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강화천정리사업에서는 방정강, 하창, 대평, 북상협동농장들이 모범을 보이었다.

군소재지를 제철로호르는 우룡천은 물론 충만강, 가막천을 비롯한 군의 모든 중소하천들의 제방이 견고하면서도 보기 좋게 쌓아졌다.

강화천정리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될 결과 토지와 도로, 시설물들이 어떤 큰물에도 피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

특파기자 동세웅

안락군 원룡협동농장 청년 1작업반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힘있게 하였다. 다음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자면 지력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흙보산비료생산태도를

정리공사장들에 나가 바둑과기, 제방쌓기에서 속도조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물결정리기술의 만가공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강화천정리사업에서는 방정강, 하창, 대평, 북상협동농장들이 모범을 보이었다.

군소재지를 제철로호르는 우룡천은 물론 충만강, 가막천을 비롯한 군의 모든 중소하천들의 제방이 견고하면서도 보기 좋게 쌓아졌다.

강화천정리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될 결과 토지와 도로, 시설물들이 어떤 큰물에도 피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

특파기자 동세웅

안락군 원룡협동농장 청년 1작업반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힘있게 하였다. 다음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자면 지력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흙보산비료생산태도를

정리공사장들에 나가 바둑과기, 제방쌓기에서 속도조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물결정리기술의 만가공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강화천정리사업에서는 방정강, 하창, 대평, 북상협동농장들이 모범을 보이었다.

군소재지를 제철로호르는 우룡천은 물론 충만강, 가막천을 비롯한 군의 모든 중소하천들의 제방이 견고하면서도 보기 좋게 쌓아졌다.

풍년으로의 첫 걸음

◇각지 농촌들의 대다수 농장들이 가을같이와 낫달림기를 레전보다 앞당겨 끝냄으로써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이제부터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 내밀어야 할 과업은 무엇인가.

농업성 국장 추철규동무는 《지금부터 농사차비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해야 합니다. 다음해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할수 있는 중요한 방도가 여기에 있기때문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렇다. 시간과 힘을 들여 잘해야 하는것이 농사차비이다.

이것을 명심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랑개를 늦추지 않고 높은 농사차비목표를 내세우고 매일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현실은 농사에서 앞장선 군, 농장, 작업반들은 페외없이 그 전제농사를 결속하기 바쁘게 모든 역량을 농사차비에 총집중시켜 성과를 올린 단위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풍년으로의 첫걸음이 바로 농사차비이다. 농사차비를 잘하는 여기에 알곡증산의 큰 예비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차비에 모든 박아야 하였습니다.》

한해농사는 농사차비로부터 시작되며 풍년으로의 첫걸음이 농사차비이다. 전두승리는 시작에서 마련된다고 지금부터 농사차비를 작전하고 완강하게 내밀어야 다음해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

농사차비도 시기가 있으며 이때에 해야 할 일감은 많다. 농사차비로부터 시작하여 농기계와 농기구수리정비도 해야 하고 질 좋은 유기질비료도 많이 생산하여 논밭에 실어내야 한다. 이처럼 크고작은 일들을 하나도 놓치지

질적으로 끝내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에 써부러기철전까지의 시간이 많다고 하면서 랑개를 늦추면 그만큼 빈구석이 생길수 있다. 지난 시기의 교훈은 농사차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농사를 짓는다면 귀중한 영농자재와 노력을 낭비하면서도 많은 낫달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농사차비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해야 한다.

농업부문의 일군들이 높은 관점을 가지고 펼쳐나서야 한다. 올해농사경험을 분석총화하고 다음해농사대책안을 세워야 하며 역량을 총집중하여 제기일에 무조건 수행하도록 작전하면서 완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도, 시, 군, 농장들에서 지대특성에 맞맞는 논벼, 강방이 등 알곡작물들의 품종을 선정하고 종자를 빨리 확보하며 종자보관과 관리로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질 좋은 각종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논밭 정보당 수습 t씩 내야 한다. 포전들에 질소, 림, 칼리는 물론 미량원소를 보충해줄수 있게 각종 대응비료생산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가을같이와 모판준비를 다그치고 토지개량, 농기계수리, 농기구확보, 물결정리사업에도 힘을 넣어야 한다.

농촌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해당 부문, 단위들에서 농사차비에 필요한것을 우선순위로 보장하여 준다. 누구나 농업전진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 애국의 마음을 안고 농촌을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힘껏 지원하여야 한다.

모두가 다음해농사에서 새로운 전향을 이룩할 배심을 안고 펼쳐나 힘찬 투쟁을 벌이도록 농사차비전투에서 애국농민의 영예를 빛내여야 할것이다.

금천, 통산남새전문농장을 비롯한 구역의 다른 농장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가을같이를 빨리 해체껴야 다음해 농업생산성과를 담보할수 있다고 하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해나가고있다.

금천 구역안의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이룩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가을같이에서 높은 속도를 보장하면서 철저히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해나가고도 하였다.

본사기자 한성일



—만경대구역 철골남새전문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속물층이 높다. 때문에 땅이 인자하고 늦게 녹는다. 그에 따라 감도 늦게 들어 봄갈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 그러므로 트랙트르수리정비를 미리 잘해놓았다가 가을에 논전면갈이를 질적으로 해

수입일을 놓치지 않은 사실이다. 보자.

불철농조조건이 불리한 우리 농장에서는 농사차비를 앞당겨 가을부터 다음해 봄을 불려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일군들은 가을갈이시기 수습일간의 비단운반조직을 신속하게 하였다. 즉 작업반들에서 멀리 있는 포전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나오며 비단운반을 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하루에 3정분의 비단운반을 할수 있다. 하지만 가까운 곳으로 나오는 기간 땅과 비단이 잘 마르면 트랙트르와 달구지들이 포전에 얼어붙는다.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운반량도 늘어나 같은 시간 동안에 운반할 수 있는 토량은 줄어들게 된다. 일군들은 준비된 모판자재들을 비단운반에 바쁜 트랙트르가 아니라 농장쪽으로 오는 여가지를 수송수단들을 리용하여 실어들이도록 운반조직도 실리있게 하였다.

이 현실은 일군들이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알뜰히 작전하며 완강하게 실천할 때 다음해농사차비성과를 얼마든지 높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김성철

안락군 원룡협동농장 청년 1작업반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힘있게 하였다. 다음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자면 지력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흙보산비료생산태도를

정리공사장들에 나가 바둑과기, 제방쌓기에서 속도조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물결정리기술의 만가공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강화천정리사업에서는 방정강, 하창, 대평, 북상협동농장들이 모범을 보이었다.

군소재지를 제철로호르는 우룡천은 물론 충만강, 가막천을 비롯한 군의 모든 중소하천들의 제방이 견고하면서도 보기 좋게 쌓아졌다.

강화천정리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될 결과 토지와 도로, 시설물들이 어떤 큰물에도 피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

특파기자 동세웅

안락군 원룡협동농장 청년 1작업반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힘있게 하였다. 다음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자면 지력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흙보산비료생산태도를

수입일을 놓치지 않은 사실이다. 보자.

불철농조조건이 불리한 우리 농장에서는 농사차비를 앞당겨 가을부터 다음해 봄을 불려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일군들은 가을갈이시기 수습일간의 비단운반조직을 신속하게 하였다. 즉 작업반들에서 멀리 있는 포전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나오며 비단운반을 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하루에 3정분의 비단운반을 할수 있다. 하지만 가까운 곳으로 나오는 기간 땅과 비단이 잘 마르면 트랙트르와 달구지들이 포전에 얼어붙는다.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운반량도 늘어나 같은 시간 동안에 운반할 수 있는 토량은 줄어들게 된다. 일군들은 준비된 모판자재들을 비단운반에 바쁜 트랙트르가 아니라 농장쪽으로 오는 여가지를 수송수단들을 리용하여 실어들이도록 운반조직도 실리있게 하였다.

이 현실은 일군들이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알뜰히 작전하며 완강하게 실천할 때 다음해농사차비성과를 얼마든지 높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김성철

안락군 원룡협동농장 청년 1작업반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힘있게 하였다. 다음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자면 지력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흙보산비료생산태도를

정리공사장들에 나가 바둑과기, 제방쌓기에서 속도조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물결정리기술의 만가공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강화천정리사업에서는 방정강, 하창, 대평, 북상협동농장들이 모범을 보이었다.

군소재지를 제철로호르는 우룡천은 물론 충만강, 가막천을 비롯한 군의 모든 중소하천들의 제방이 견고하면서도 보기 좋게 쌓아졌다.

강화천정리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될 결과 토지와 도로, 시설물들이 어떤 큰물에도 피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

특파기자 동세웅

안락군 원룡협동농장 청년 1작업반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힘있게 하였다. 다음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자면 지력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흙보산비료생산태도를

정리공사장들에 나가 바둑과기, 제방쌓기에서 속도조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물결정리기술의 만가공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안락군 원룡협동농장 청년 1작업반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힘있게 하였다. 다음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자면 지력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흙보산비료생산태도를

정리공사장들에 나가 바둑과기, 제방쌓기에서 속도조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물결정리기술의 만가공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강화천정리사업에서는 방정강, 하창, 대평, 북상협동농장들이 모범을 보이었다.

군소재지를 제철로호르는 우룡천은 물론 충만강, 가막천을 비롯한 군의 모든 중소하천들의 제방이 견고하면서도 보기 좋게 쌓아졌다.

강화천정리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될 결과 토지와 도로, 시설물들이 어떤 큰물에도 피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

특파기자 동세웅

안락군 원룡협동농장 청년 1작업반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힘있게 하였다. 다음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자면 지력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흙보산비료생산태도를

정리공사장들에 나가 바둑과기, 제방쌓기에서 속도조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물결정리기술의 만가공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강화천정리사업에서는 방정강, 하창, 대평, 북상협동농장들이 모범을 보이었다.

군소재지를 제철로호르는 우룡천은 물론 충만강, 가막천을 비롯한 군의 모든 중소하천들의 제방이 견고하면서도 보기 좋게 쌓아졌다.

강화천정리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될 결과 토지와 도로, 시설물들이 어떤 큰물에도 피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

특파기자 동세웅

안락군 원룡협동농장 청년 1작업반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힘있게 하였다. 다음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자면 지력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흙보산비료생산태도를

정리공사장들에 나가 바둑과기, 제방쌓기에서 속도조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물결정리기술의 만가공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강화천정리사업에서는 방정강, 하창, 대평, 북상협동농장들이 모범을 보이었다.

군소재지를 제철로호르는 우룡천은 물론 충만강, 가막천을 비롯한 군의 모든 중소하천들의 제방이 견고하면서도 보기 좋게 쌓아졌다.

강화천정리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될 결과 토지와 도로, 시설물들이 어떤 큰물에도 피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

특파기자 동세웅

안락군 원룡협동농장 청년 1작업반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힘있게 하였다. 다음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자면 지력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흙보산비료생산태도를

정리공사장들에 나가 바둑과기, 제방쌓기에서 속도조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물결정리기술의 만가공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강화천정리사업에서는 방정강, 하창, 대평, 북상협동농장들이 모범을 보이었다.

군소재지를 제철로호르는 우룡천은 물론 충만강, 가막천을 비롯한 군의 모든 중소하천들의 제방이 견고하면서도 보기 좋게 쌓아졌다.

강화천정리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될 결과 토지와 도로, 시설물들이 어떤 큰물에도 피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

특파기자 동세웅

안락군 원룡협동농장 청년 1작업반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힘있게 하였다. 다음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자면 지력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흙보산비료생산태도를

정리공사장들에 나가 바둑과기, 제방쌓기에서 속도조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물결정리기술의 만가공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안락군 원룡협동농장 청년 1작업반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힘있게 하였다. 다음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자면 지력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흙보산비료생산태도를

정리공사장들에 나가 바둑과기, 제방쌓기에서 속도조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물결정리기술의 만가공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강화천정리사업에서는 방정강, 하창, 대평, 북상협동농장들이 모범을 보이었다.

군소재지를 제철로호르는 우룡천은 물론 충만강, 가막천을 비롯한 군의 모든 중소하천들의 제방이 견고하면서도 보기 좋게 쌓아졌다.

강화천정리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될 결과 토지와 도로, 시설물들이 어떤 큰물에도 피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

특파기자 동세웅

안락군 원룡협동농장 청년 1작업반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힘있게 하였다. 다음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자면 지력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흙보산비료생산태도를

정리공사장들에 나가 바둑과기, 제방쌓기에서 속도조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물결정리기술의 만가공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강화천정리사업에서는 방정강, 하창, 대평, 북상협동농장들이 모범을 보이었다.

군소재지를 제철로호르는 우룡천은 물론 충만강, 가막천을 비롯한 군의 모든 중소하천들의 제방이 견고하면서도 보기 좋게 쌓아졌다.

강화천정리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될 결과 토지와 도로, 시설물들이 어떤 큰물에도 피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

특파기자 동세웅

안락군 원룡협동농장 청년 1작업반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힘있게 하였다. 다음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자면 지력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흙보산비료생산태도를

정리공사장들에 나가 바둑과기, 제방쌓기에서 속도조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물결정리기술의 만가공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최첨단의 위용 떨칠 우리 식 정보기술의 밝은 래일

제 24차 전국 프로그래밍 경연 및 전시회장을 돌아 보고

얼마전에 진행된 제 24차 전국 프로그래밍 경연 및 전시회는 당의 위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우리 식 프로그래밍 기술의 면모를 보여주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발전시키는 선진차적으로 힘을 쏟아야 하며 그중에서도 정보기술, 특히 프로그래밍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시회장에서 우리와 만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 일군은 이번 전시회에는 인민생활과 인민경제의 현대화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있는 프로그램들과 장치, 요소들도 함께 전시되었으며 국내 도입제품들이 아니라 대외에 도입되어 우리의 프로그래밍 산업과 정보산업의 위용을 과시하는 각종 제품들도 출품되어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우리는 개발자들을 만나 잔디밭을 걸

프로그래밍 《루트 주단》, 대동강리공장종합자동화체계, 외측나사압축기자동화체계, 현장모션형수자조종장치 《CNC-16》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재배가능한 잔디를 선별하여 씨뿌리기로부터 기계정밀배판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인 지도를 할 수 있게 하는 원격관리체계도 좋고 제품의 주문으로부터 생산조직과 지휘, 판매에 이르는 기업생산활동의 종합정보화를 높일 수준에서 실현한 대동강리공장의 통합자동화체계도 좋았다.

우리 나라의 CNC설비로 필요한 기계정밀가공을 실현할 수 있게 한 과학연구성과, 다축동시조종기능과 현장모션대면기능을 가진 고성능CNC장치도 참관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윽고 우리는 각 대학들의 전시대에 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시대에 는 나래의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정보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기술 성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천의 제단실수물을 높이 고

피복생산준비공정시간을 훨씬 단축하게 한 형질입력배열작도지원체계와 수자식영화편집의 세계적인 발전수준에 맞게 이미 나온 필름영화를 컴퓨터 매체로 전환하며 필름에서와 같은 충분한 색효과를 보장하도록 하는 수자식필름해체체계는 경공업부문과 영화예술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프로그램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주요업종제품의 적지 않은 기호학적으로 평가하여 식량문제해결에 이바지하는 조선 농업기후정보보상체계, 평양시의 큰물피해를 막고 대동강을 자연관리의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한 평양시실시간물방가지휘체계 등도 모두 현실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을 푸는데 지향된 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임의의 지역에서의 긴급수송회와 재해지역의 구조지원 등을 믿음직하게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내놓은 개발자의 설명은 많은 참관자들을 흥분케 하였다.

참관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프로그램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시대에 도 많았다.

화력발전발전기진동분석 및 진단프로그램은 화력발전소들에서, 회전기계의 진동해석 및 현장균형잡이프로그램은 전동기와 배아를 리용하는 등 각종 공장에서 리용할 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실행체계프로그램은 식료공장에서 생산의 효과성을 높이고 전력소비를 낮출 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이 프로그램들이 도입된 생산단위들에서 그 덕을 단단히 보고있다는 설명을 들은 참관자들속에서 자기 단위에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호르하게 해주었다.

다국어문자식 프로그램 《신동》도 지난 시기 사진기와 기타 화상입력수단으로 입력한 문서화상을 컴퓨터에서 편집 가능한 문서로 인식처리함으로써 문서입력의 효과성과 리용의 편리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인민경제의 정보화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들은 리과대학과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의 전시대

에도 있었다.

리과대학에서 출품한 10개의 부분프로그램들로 구성된 3월5일청년광산통합생산체계에 대한 다매체편집물을 한 동안 바라보는 우리에게 개발자는 이 체계의 우점이 생산현장조종에 리용되는 외국의 값비싼 PLC장치를 리용하지 않고서도 우리의 프로그램과 정보기술장치의 의해 광산운반과 파쇄, 마광, 부선, 용수공정을 포함하는 광산의 전체 생산공정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명실공히 우리의 두뇌로 착상하고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장비로 성과를 이룩하였다는 그의 대답은 날로 발전하는 우리 식 프로그래밍 기술에 대한 자랑과 긍지를 더해 주었다.

컴퓨터망상에서 정보파일을 줄이고 문서의 중요내용을 자동적으로 뽑아낼 수 있게 한 문서 요약프로그램, 적체체질의 체육선수후비발체, 컴퓨터망상에서의 정보교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자료무결성검증체계 등을 출품한 평양컴퓨터기술대학 개발자들의 이야기 역시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성, 중앙기관들의 전시대와 각 도들의 전시대, 공장, 기업소들의 전시대에도 정보기술의 도입범위를 부단히 확대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는 과정에 이룩한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정보산업지도국에서 출품한 주소록검색프로그램 《전화번호록》 등과 체육성과 그 아래단위에서 출품한 탁구선수의학적조종지원체계, 음성입력실시간축구경기분석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관자들의 관심과 기대는 대단하였다.

더우기 우리를 기쁘게 한 것은 여러 대학들과 정보산업지도국, 재정성, 체신성, 특혜운성, 체육성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편찬단위, 아예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통해 공동연구에서 뚜렷한 전진을 이룩한 것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산업지도국의 정보기술인재들은 공동연구를 통해 현대를 더 비약한 우리 식 조작체계 《붉은별》을 출품하였으며 재정성과 체신성, 특혜운성과 체육성의 프로그램두뇌진은 련관단위들과 성아래단위의 과학

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경영업무활동의 정보화를 완성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들을 출품하였다.

이전의 판본들에 비하여 보다 높은 자료봉사기능과 우리 식의 강력한 보안을 지닌하는 기능 등을 가진 부문체계들로 구성된 우리 식 조작체계 《붉은별》은 참관자들의 깊은 관심을 모았다. 재정성 소장 리지혁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인민경제의 정보화는 매 단위의 부문정보화를 하루빨리 완벽하게 실현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들과 정보산업지도국, 평양정보기술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과 정보기술장치를 제때에 받아들여도 되고 련관단위들과의 공동연구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재정부문의 정보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우리 식으로 다종모양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식의 책임인물들부러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밀어주고있으며 부서별정보기술보급책임자들의 역할을 높여 모든 정부원들이 새로 개발되어 나오는 우리 식의 프로그램들과 장치들에 대하여 잘 알고 그 도입사업에 한사칼같이 떨쳐나서게 하고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과 장치들이 개발되는속도 제때에 도입하여 련관단위들과의 정보교환도 더 신속정확히 진행되고 인민경제의 각 부문정보화와 공동연구에서도 더 큰 성과가 이룩된다는 그의 말은 참관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렇다. 우리의 것을 사랑하는 모든 사회생활들이 누구나 창조적인 개발자가 되고 적극적인 도입자가 되어 정보기술의 갱신주기를 더 빨리 단축할수록 나라의 정보기술은 그만큼 더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전시회장에서 우리는 애국에 불타는 심장을 지닌 젊고 정도 양양한 정보기술인재들을 의하여 더 빨리 다가올 정보기술발전의 래일, 최첨단과학기술로 끝없이 번영할 조국의 밝은 래일을 확인하였다.

본사기자 백성근

보양소가 자랑하는 평양의 딸들

중앙출판물보급사 종업원들

빠스는 달리고있었다.

평양에서 동림으로 향한 그 빠스에는 네명의 녀인들이 타고 있었다.

《비서동지, 이제 한 시오리만 가면 보양소지요?》

《영호아빠님처럼 무척 반가워하셨지요?》

이러며 졸음 차창밖을 내다보는 그들은 중앙출판물보급사 초급당비서 조근희동무와 종업원들이었다.

그날은 선군절을 앞둔 지난 8월 24일이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영애군인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운 당의 전사들이었다.》

평양에서 동림까지는 수백리가 평야이다. 그러나 중앙출판물보급사의 종업원들은 해마다 8월이면 꼭꼭 동림영애군인보양소를 찾아가다.

그들은 이렇게 20여년 세월 동림의 영애군인들을 위해 뜨거운 진정을 다 바쳐왔다. 그날도 그들은 동림영애군인보양소의 영애군인들과 함께 선군절을 쇠려 떠났다.

저녁이슬이 질무렵에야 일행은 보양소에 도착하였다. 영애군인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몸은 어떤가, 그세 앓지는 않았는가 다정히 물어오 보 고 준비해온 물자들을 영애군인

들에게 안겨주며 허물없이 한자리에 모여앉은 그들의 모습은 친정집을 찾은 딸자식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날 평양녀인들과 영애군인들은 온밤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보양소영애군인들의 건강상태를 보급사종업원들의 소행의 자랑 그리고 창조의 혁신으로 새날이 밝고 날이 저무는 평양의 소식에 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으로 수도의 곳곳에 일떠서고 있는 문수물놀이장과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과 미림수마구락부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영애군인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튿날 아침 중앙출판물보급사의 종업원들은 영애군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안겨주면서 선군절을 축하하는 그들을 축하해주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헤어지기 전에 조영희, 김진영, 김화실동무를 비롯한 보급사의 종업원들은 영애군인들의 두손을 부여잡고 절절히 말하였다.

《영애군인 동지들의 조국수호정신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갈 때는 일을 잘하겠습니까.》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며 영애군인들도 어머니당의 고마움을 언제나 잊지 않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영애군인들만이 살고있는 전 평로병이며 영애군인인 안병욱

동림은 수십년세월 변함없이 동림의 영애군인들과 인연을 맺고 친혈육의 정을 다하고있는 중앙출판물보급사 종업원들의 소행을 널리 소개해줄 것을 부탁하며 편지에 이렇게 썼다.

《그들은 보양소의 자랑입니다. 우리 보양소영애군인들이 그들을 평양의 딸들이고 스스름없이 보양하는 해마다 영애군인들의 건강을 넘겨주며 영애군인들인 약재를 비롯한 많은 물자들을 안고와서뿐이 아닙니다. 영애군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에 사심이 없고 우리들이 주지않을 세라, 나약해질때라 힘을 주고 고무를 주는 그들이 꼭 친자식처럼 여겨지기에 때문입니다. 친딸이면 그보다 더하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들은 우리 당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조국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결심을 가다듬곤 합니다.》

안병욱동림의 편지에서 우리는 영애군인들을 위하여 중앙출판물보급사 종업원들의 깨끗한 마음과 인민보양을 위하여 영애군인들이 련합하여 불어넣은 사랑과 애정을 보았다. 그리고 송하한 공포를 지닌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확신하였다.

평양녀인들과 동림의 영애군인들은 수백리 먼곳에 떨어져있어도 이렇게 뜨거운 혈육의 정과 사랑이 오고가기에 평양과 동림은 가까운 지척이고 평양의 딸들의 동림행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것이라고.

본사기자 오은별

오늘 우리 조국밖에서는 영애군인들을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미풍이 활짝 꽃피고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과 전사, 당과 인민이 일심단결되고 사람들이 친혈육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정진도덕분야에서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를 보여주시고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는것입니다.》

통천군 읍에서 사는 영애군인 리명환동무는 우리 제도가 세상에 있어 제일이라고 하면서 원로물자를 가지고 마시평스키장건설에 참가한 군인전사자들에게 다녀오면 나날에 만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본사 편지로 전해왔다.

읍안의 영애군인들이 원로물자를 가지고 마시평스키장건설장소로 가기 위해 반듯하게 도착했다는것을 알고 그의 속삭이기를 위해 마음을 쓴 한 인민보양원과 영애군인들이 련합하여 불어넣은 사랑과 애정을 보았다. 그리고 송하한 공포를 지닌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확신하였다.

평양녀인들과 동림의 영애군인들은 수백리 먼곳에 떨어져있어도 이렇게 뜨거운 혈육의 정과 사랑이 오고가기에 평양과 동림은 가까운 지척이고 평양의 딸들의 동림행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것이라고.

본사기자 오은별

우리 제도

가

제

일

함흥시 동흥산구역 서상동에서 사는 영애군인 리은희동무는 편지에서 오랜 기간 자기를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 곁손익남에는 갖가지 생활용품들을 마련해준 함흥의 국어학원 교원 조규봉동무의 소행을 전하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을 깨우쳐 소개하였다고 썼다.

평성시 은동에서 사는 영애군인 리명환동무는 새 살림집도 지어주고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때라 온갖 지성을 바쳐 자기를 돌봐주고있는 평성향성가족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소행을 편지로 전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만 꽃피어날 수 있는 미풍의 주인공들을 널리 소개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모란구역 제 2중동에서 사는 영애군인 영흥동무는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중앙예술선동사의 종업원들이 자기 생활을 찾아 혈육의 정으로 생활을 꾸미고 돌봐주고있는 소행을 편지로 전하면서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 제일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신현규



학생들을 창조적인 실천능력을 가진 농업과학기술인재들로 준비시켜나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에서- 본사기자 찍음

메히프로 동당 전국지도자가

조선로동당 대표단을 만났다

알베르도 아나야 구메르메스 메히프로 동당 전국지도자가 6일 당청사에서 이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박근광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메히프로 동당 전국지도자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표단단장이 전달하였다.

전국지도자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을 중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해드릴것을 부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선군정치를 펼치시어 조선을 불멸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겠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백두의 선군정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미래의 혁명정도발족을 단호히 거부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독립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 전진적 지지와 협력을 표시하면서 그는 앞으로도 조선로동당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조국 노력할 의지를 피력하였다.

여기에는 메히프로 동당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메히프로 동당 전국조직원위원회, 전국집행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일 두 나라 체육대학팀사이의 축구경기 진행

조선체육대학팀과 일본체육대학팀사이의 남, 녀축구경기가 7일과 8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리종무체육사, 리창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마철수 조일우호친선협회 서기장, 신동규 조선체육대학 학생, 관계부서 일군들, 축구전문가, 애호가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경기들을 관람

하였다.

마쯔나미 게이로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체육대학대표단이 8일 문수물놀이장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원들은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까지 이룬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문수물놀이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다.

이밖에도 대표단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평양국제축구학교, 미림수마구락부, 평양민속공연 등 평양시안의 여러곳을

단면번락에 의한 역술 등이 이어지는 경기들은 관람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제인 결합과 멋있는 차날기로 득점기회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관람자들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남자경기에서는 조선체육대학팀이 이겼으며 여자경기는 득점 없이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의료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그들이 현자에게 정성을 다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얼마전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외국어학원을 찾았던 우리는 교직원, 학생들이 저마다 이르는 숙보판으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기어가는 집단이 사랑하는 보배의 사라는 품직한 계몽원에 늘 교직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글라콜 에를 쓰는 이곳 진료소의 장해옥동무의 이름 다는 소행이 적혀있었다. 학원의 한 교원은 그의 높은 의술과 함께 다정한 성격에 대하여 여러번 목격하고 감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료일군

평양외국어대학진료소 의사 장해옥동무

야기를 들려주었다.

혁명의 군복을 입고 꽃나치 너시절을 보낸 장해옥동무가 이곳 진료소 의사로 배치되어온것은 몇년전이었다. 그때 그는 어깨우에 달았던 띠를 다시금 풀어보며 이렇게 속다짐하였다.

(내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건강의 이별처럼 한생을 맺어내리라.)

진료소에 도착한 그날부터 그는 교직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글라콜 뛰어나다.

교직원, 학생들의 병력서를 새로 다시 꾸비한테 맞게 써서 랍들의 건강장태에 따르며 치료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대학기간에 지식의 탐을 높이 쌓고 대학생과학참가수상과 학위를 수여받은 그는 조선부무기간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 자기의 열정을 더욱 든든히 다지었다. 제대되어서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 짚시간을 리용하여 수많은 의학적저술들을 탐독하였다.

단란한 가정의 행복보다는 의료일군의 본분을 지켜 교직원,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담보하려는 그의 불같은 모습에 감동된 남편도 적극 도와주었다.

그가 치료사임을 시작하지 얼마 안되어 수많은 교직원, 학생

들이 저마음 병원이 아니라 진료소를 찾았다.

그러던 어느날 진료소로는 나아린 기숙사병원을 열고 한 교원이 들어섰다. 놀이진 제논을 정상으로 낮추고 인차 건강을 회복시키면서 그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치료하는 시간만큼 그 학생은 수업에 빠졌었다. 부모의 곁을 떠나 생활하는 학생들일수록 더더욱 위생상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매일 2번씩 정기적인 검진을 진행하는 한편 담담교원들과 자주 면회를 가졌다.

특히 여러 모임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의학사식을 알려주어

계절에 따르는 질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매 교실들에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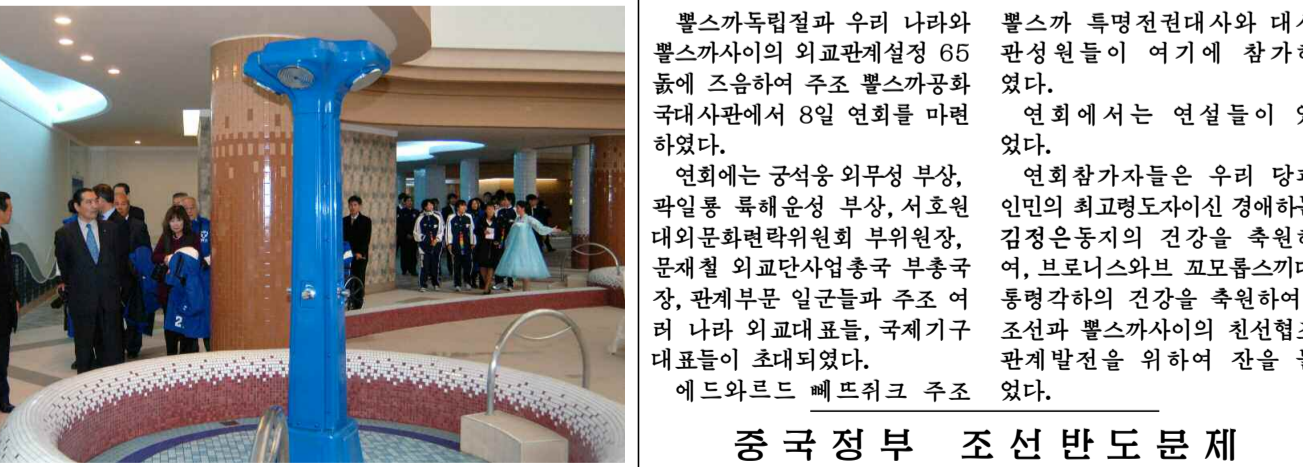
자식의 건강이 넘쳐나며 불편함을 자지 못하는 어머니의 심정 그대로였다.

교실마다에서 울려 퍼지는 학생들의 맑고 명랑한 웃음소리를 위해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는 그의 마음을 안 당조직에서도 적극 밀어주었다.

집단의 사랑과 믿음은 클수록 장해옥동무는 더욱 분발하고 있었다. 그는 현실생활의 거 큰 문물들을 발표하였고 여러건의 정의 고안수서들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 실력 있고 정성이 체질화된 의료일군이라는 대중의 깊은 평가를 받고있다.

본사기자 김옥별

일본체육대학대표단 여러곳 참관



일본체육대학대표단 문수물놀이장 참관

원들의 종합공연을 관람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서 일군들과 우리 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적십자국제위원회대표단, 적십자 및 적민회 국제련맹대표단 단장들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블스까공화국대사관에서 연회 마련

블스까독립결과 우리 나라와 블스까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5년에 즈음하여 주조 블스까공화국대사관에서 8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에는 궁승용 외무부 부상, 판일동 특혜운성 부상, 서호연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문제철 외교관사업총국 부총국장, 관계부서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에드워드 D. 베드워크 주조

블스까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에는 궁승용 외무부 부상, 판일동 특혜운성 부상, 서호연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문제철 외교관사업총국 부총국장, 관계부서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에드워드 D. 베드워크 주조

블스까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에는 궁승용 외무부 부상, 판일동 특혜운성 부상, 서호연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문제철 외교관사업총국 부총국장, 관계부서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에드워드 D. 베드워크 주조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 특별대포 일행 귀국

무대위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특별대포와 일행이 8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서 일군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공사가 전송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대표단 귀국

이브라힘 이브라힘 이스마일 국제관계 및 협조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비행장에서 관계부서 일군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공사가 전송하였다.

정부대표단이 8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장본인인 미국이 허튼 어른을 계속 내뿜고있다.

최근 미태평양군사령관은 미지상군의 남중국해지순함배치는 지난해에 발표된 새로운 국방전략에 포함된 《재군행》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조선반도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하였다. 그는 《우리의 주요 임무는 미국민의 리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다.》 《우리는 모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떠들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틀어쥐기 위해 탐욕의 손길을 뻗치고있는 미국이 그것을 합리화해보려고 허튼소리를 내뿜려고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있는 것은 미국민들의 리익이 침해당해서 아니요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미국의 지배정책에 기인된다.

일찍이 미국정권자들은 《태평양의 통치권은 반드시 미국에 속해야 한다.》 《태평양과 아시아는 마땅히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처럼 미국의 소유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간전권시기에 와서 《태평양국가》라는 국가교리로 정책화되었다. 당시 미국대통령 메건은 《미국은 태평양국가로서 《개혁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지역에 진출해야 한다.》고 떠벌었다.

허튼 미국정권자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물젖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두어왔다.

최근년간 미국지배층이 《태평양국가》론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전략적 및 지형학적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이 지역을 틀어쥐는 것이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실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21세기가 아시아태평양세기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되어있다. 유럽중심정책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정책으로 확고히 방향전환한 미국은 《태평양국가》론을 들고나오면서 이 지역에 정치, 경제, 군사적간섭의 손길을 더욱 깊숙이 뻗치고있다.

현시기 미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추구하는 기본목적은 힘으로 반제국주의적인 나라들을 견제, 제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미제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수백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수십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있다. 그 대부분 무력이 북태평양으로부터 남조선과 일본, 필리핀을 거쳐 인디아양과 동해에 이르는 광활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중되어있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 동북아시아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되고있다. 이곳은 여러 지역과 대양들과 연결되어있다. 이진 국가안전보좌관 브레진스키는 미국이 세계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프가니스탄, 중동지역 그리고 조선반도가 포함된 동아시아지역을 틀어쥐어야 한다고 떠벌었다.

오늘 미국은 새로운 국방전략을 통해 동북아시아를 틀어쥐려고 별의별 책동을 다하고있다.

동북아시아는 현대기에 새로운 맹진지의 발원지로 되고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무력이 증강되고 군비경쟁, 첨단 무기개발경쟁이 그 어느 지역보다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전략수행에서 공적의 화살을 조선반도에 들리고있으며 이 지역을 전초기지로 여기고있다.

그것은 미국이 벌리고있는 무력배치와 군사연습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미국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무력축감을 진행하면서도 조선반도를 둘러싸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무력을 체계적으로 증강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벌리는 가장 큰 규모의 도발적인 군사연습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 감행하고 있다.

남조선과 일본 등 조선반도 주변에 핵추진항모모함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미군기동타격무력이 집중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빈번하여 미국주도하의 전정연습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에 호의적향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올해도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들이 오늘에 와서는 보통현상으로 되고있다. 최근에 미국, 일본, 남조선은 미제 7함대소

속 초대형핵동력항모모함인 《조지 워싱턴》호를 축으로 한 연합해상훈련을 발판적으로 감행하였다.

침략대조선전략에 따라 감행되고 있는 조선반도주변지역로의 미국의 무력전진배치와 광범적인 전정연습들은 긴장한 조선반도정세를 전정경색으로 몰아가고있다. 전정상태에 있는 조선반도는 오늘날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을 항시적으로 위협하는 폭발적인 시한탄이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다른 하나의 존재는 군국화의 길로 내달리는 일본이다. 일본은 미국에 적극 추종하면서 상권을 등에 업고 파죽이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한사코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사위대》를 《국방군》으로 만들려 하고있다. 《전수방위》의 원칙에 따라 창설된 《사위대》를 침략전쟁에 공공연히 뛰어들수 있는 《국방군》으로 만들려는 일본집권세력의 기도에 국제사회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사위대》를 세계에서 손꼽히는 침략무력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항모모함을 보유한 몇개 안되는 나라들중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일본은 공중 및 해상기동타격무력을 강화하는데 주되는 힘을 돌리고 있다.

일본반동세력은 《적기공격》론을 로골적으로 떠들고대고있다. 동북아시아에 대한 제침의 기회를 마련하려는 일본반동들을 위협한단한 길로 떠밀고 있다는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의 엄중성이 있다.

지금 조선반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쟁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되고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힘으로 지배하려 하는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는 곧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긴장격화를 가져오며 조선반도에서 감행되는 새 전정책들은 지역에서의 전쟁위험준대로 이어진다.

현실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있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제적문제로서 나서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쟁위험이 가장 큰 조선반도에 긴장상태를 완화하지 않고 이 지역의 정세를 개선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의 거두려는 발기와 제안들, 그 실현을 위한 인내성있는 노력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데도 그 목적이 없다.

동북아시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확립하려고 발판하는 미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떠들 자질이 없다.

현시기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을 가늠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하루빨리 남조선감정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시기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

로 씨 야 청년 단체
우리 공화국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

전맹페넌공정창립 95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당산하 청년조직인 로씨야공산주의 청년동맹 대회가 10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65년의 역사를 아로새겨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은 령도자의 두리에 군인이 굳게 뭉친 온 사회의 일심단결과 승고한 애국주의의 감정에 기초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올해 초 공화국을 둘러싼 정세는 진보적인류의 판심을 다시금 집중시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밑에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웅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여 미국과 서방의 위협공갈을 물리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위력을 만방에 파시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 따라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은 청년들을 위문으로 조직동원하고있다.

공화국에서 경제, 국방, 문화건설과 첨단과학기술개발의 앞장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서있다.

로씨야공산주의 청년동맹은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다.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것을 축원한다.

로 씨 야 청년 단체
우리 공화국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

로씨야와 니카라과가 최근 안정보장분야에서 호상협력 4일 물자원력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수단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가 4일 물자원력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 국 국 방 부 진 짜 평 화 를 위협하는 것은 일본이라고 폭로

중국국방부 대변인이 최근 정기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중국의 군사적위협》을 내뿜고있고있고 관련하여 진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일본이라고 폭로단죄하였다.

그는 일본이 찍하면 《중국의 군사적위협》에 대해 떠들고있는데 그 목적은 군비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려는 데 있다고 까맣히고 일본측의 모든 행위는 주권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응당한 경제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최근 빈번히 전정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중국에서는 싸움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격언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일 본 나 가 사 기 시 에 서 미 국 의 핵 시 험 에 향 의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최근 원수폭금지 위한 사회단체성원들과 원자탄피해자들이 미국의 핵무기성능증진시험에 항의하여 풍성투쟁을 벌였다.

풍성투쟁참가자들은 《핵시험

압 력 정 책 철 회 를 주 장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세에드 알리 카메네이가 3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의 정치가들속에서 이란에 대해 핵비싸임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방이 튀어나오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은 아직도 세계를 거머쥔 땅상에 사로잡혀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은 다른 나라에 합부 로 핵위협을 가한 권리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란의무성 대변인이 5일 미국의 부당한 압력정책의 철회를 주장하였다.

미국회가 핵비싸임을 앞두고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추진시키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이 압력과 협상이라는

분 쟁 의 조 속 한 해 결 을 호 소

남아프리카대통령 자코브 겐데레이올레카사 주마가 5일 한 의교석상에서 아프리카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호소하였다.

그는 대륙나라들은 자기 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가지고있다고 말하였다.

말레시아수사장 다독 스키 모하마드 나지르 빈 쉐히 아브 라자지가 5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과 오스트랄리아의 정담평위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미국과 오스트랄리아가 말레이시아에서 정담평위를 감행하였다는 보도가 전해진 것 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국가주

정 부 폐 쇄 위 기 를 통 해 본 미 국 의 쇠퇴 몰락

지난 10월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악몽과도 같은 달이었다. 예산안과 관련한 싸움으로 련방정부가 보름나 부분폐쇄되었었다. 미국회에서는 2014 회계년도 예산안이 민주 공화 당의 지철한 공방으로 성립되지 못하고 정부에 지출되는 돈들이 막혀버린 것이 된다는 원인이었다. 결국 새 회계년도에 시작된 10월 1일부터 련방정부의 10% 많은 부수들이 문을 닫고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휴직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안되게 되었다. 지출 대용의 의국방문자취 취소는 사태가 절체했다. 후회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활동성 저하로 미국에서 17조US\$를 넘어서었다. 이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체우면 높이기로 합의한 후 불과 하루만에 미국의 채무가 3000억여US\$ 더 늘어났다는데서 나타난다. 이런 속도론 채무가 늘어났다면 미국은 연내인가는 국가부도사태를 겪게 될 것이다. 정부부채가 앞으로 경제파괴로 이어질수 있다는 아우와 조소가 그칠새 없다.

이런 정부부채소멸이 주는 충격은 매우 크다.

그것은 쇠퇴몰락의 길을 걷고있고 쇠퇴하는 국가체우한도된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미성년범죄예방 감소

로스앨에서 지난해 미성년들에 의해 감행된 범죄피해가 11%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하여 전국적인 총범죄전수에서 미성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5%까지 감소되었어 이것은 최근 15년래 가장 낮은 지표라고 한다.

로씨야내무부는 최근 이에 대해 밝히면서 전사회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관심을 높여 그들이 위험행위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도록 하는 것과 함께 그들에게 자기 행동에 대해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자건설 계획

요르단정부가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5일 이 나라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은 메 원자로들의 발전능력이 각각 18만kW에 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계획하에 많은 자금을 들이기로 하였다.

마 약 반 대 투 쟁

케니아에서 10월에 인플레이션이 9월의 8.29%로부터 7.76%로 감소되었다.

10월 31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30년이 과학적발전의 우월한 거점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농업에 과학적으로 발전시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오늘날 인류앞에는 과학기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얼마전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와 국제농업개발기금, 세계식량계획은 공동으로 보고서를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만능적인 기이에서 시달리고있는 사람들의 수가 8억 42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금 세계는 농업생산이 인구증상속도에 따라 서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항시적인 식량위기에 직면하고있다.

이미 2009년에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는 세계인구가 2050년에 가서는 91억명에 달할 전망이므로 세계적인 식량생산량을 70% 늘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10년동안에 세계 농업생산량의 년평균 성장률이 1.5%에 그칠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지난 10년동안의 성장률보다 0.6% 낮은 것으로서 농업생산성성속도는 보다 급격적으로 예견되고있다.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는 식량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의하면 아프리카의 사하라이남지역에서는 가뭄과 열파로 강병이재해의 40%가 불모지로 될것이며

살림집가격 폭등

오스트랄리아에서 올해 9월 까지의 1년동안에 8%의 주요 도시들에서 살림집평균가격이 7.4% 인상되었다.

6일 이 나라 통계국이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와 재

인디아의 뉴델리에서 있는 한 공장에서 2일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로 6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부상당하였으며 건물 일부가 파괴되었다 한다.

경제형편 악화

에스파냐에서 10월에 경제형편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를 나타내는 소비자신용지수가 그 전 달보다 4.5점 떨어졌다.

4일 이 나라의 한 조사단체가 이에 대해 밝혔다.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당국의 정담평위를 반대하여 시위